사 내 한
CN 09-24

CHAIRPERSON NOTE
체어퍼슨노트

2009.06.19 (통권253호)

경제 이슈
-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부문 성과
- 국내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자본수지 유출초 규모 확대

경영 노트
- 불황에도 끄떡없는 브랜드

사회 트렌드
- 애플 세대

차이나 리포트
- 세계은행 중국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저널 브리프
- 금융위기 이후 '新경제'를 대비하라

洗心錄
- 기부자본주의,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現代經濟硏究院
HYUNDAI RESEARCH INSTITUTE

□ 한미 정상회담의 경제 부문 성과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FTA 비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고 양국간 통상 부문과 산업 부문의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합의**

- **통상 분야 :** FTA 비준이 시간이 걸리는 문제이지만 한미 간 교역의 활성화는 양국에 이익을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재확인하였고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보호주의도 배격하는 등 교역 활성화 의지 확인
- **산업협력 위원회 :** 양국의 장관 혹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여 무역과 투자, 연구개발, 전략물자, 표준 부문에 걸쳐 무역장벽 요인, 전략물자 수출 통제, 기술 장벽 해소 등에 관한 양국의 이견을 조율하도록 함
- **산업 협력:** 지능형 전력망 기술 개발 등에 대한 산업 협력 강화

■ **특히, 대통령은 한미 기업인들과의 만찬에서 녹색성장 분야, 정보기술, 생명공학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하였고 미국의 JP모건은 한국의 녹색산업 분야에 1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결정**

□ 국내 경상수지 적자 전환 및 자본수지 유출초 규모 확대

■ **한국은행(17일)에 따르면 경상수지는 2008년에 적자로 전환하였고 자본수지는 유출초 규모가 확대됨**

- **경상수지** : 원유 가격이 급등으로 인한 원유수입액 증가 등으로 경상수지는 2007년에 58억 8,000만 달러 흑자에서 2008년에 64억 1,000만 달러 적자로 전환
- **자본수지** : EU에 대한 자본수지 유출초가 심화되어 자본수지는 2007년 368억 4,000만 달러 유출초에서 2008년에 403억 3,000만 달러 유출초로 그 규모가 다소 확대됨
- **지역별 경상수지** : 동남아(2008년, 231억 5000만 달러), 중남미(153억 7,000만 달러), 미국(116억 3,000만 달러)에 대한 흑자 규모가 확대된 반면 EU(116억 9,000만 달러), 중국(210억 1,000만 달러)에 대해서는 축소

■ **한편, 자본수지는 미국 및 EU의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대규모로 순매도한데가 이들 지역 거주자에 대한 파생금융상품 관련 지급이 증가하여 큰 폭의 유출초 시현**

□ 불황에도 끄떡없는 브랜드*

■ **장기적인 불황의 늪에서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고전하는 가운데 변함없는 아성을 유지하고 있는 장수 브랜드에 일련의 특징들이 존재함**

- 장수 브랜드들을 살펴보면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중시,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최고 품질 유지 등 브랜드 관리상의 특징이 나타남

<장수 브랜드 사례 및 내용 >

구 분	내용 및 사례
소비자 커뮤니케이션	· 장기적으로 사랑을 받아온 브랜드들은 소비자의 오감을 자극하되 과하지 않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코카콜라)** 홈페이지 내 'Facts&Myths'라는 코너를 마련해 회사에 대한 잘못된 루머를 하나하나 정정해 주면서, 소비자들에게 침묵이 아닌 조기 대응 실시 · **(맥도널드)** 'i'm lovin' it'이라는 광고 문구로 소비자들의 감성을 자극, 접근 편의성과 적극적인 대중매체광고로 친근감 극대화
글로벌 틈새시장 공략	· 장수 브랜드들은 선제적 시장조사를 토대로 글로벌 틈새시장(niche)을 발굴해 꾸준히 시장을 넓히고 있음 · **(구찌)** 매출 악화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던 회사는 헐리우드 배우 등의 젊은 트렌드리더들을 타겟으로 브랜드 고유의 이미지인 고급에 신세대의 감각을 중시한 모던 이미지를 추가하여 틈새시장 개척 · **(태그호이어)** 스포티한 고급 시계로 유명했던 브랜드에 다이아몬드로 장식한 럭셔리 휴대전화 '메리디스트'를 선보여 일반 휴대전화에 만족하지 못했던 헐리우드 부자들을 공략했음
최고의 품질 유지	· 제품의 품질에 남다른 신념을 보였던 기업들은 호·불황을 막론하고 항상 소비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음 · **(혼다)** 1946년 '혼다기술연구소'를 설립한 혼다는 철저한 고품질 전략으로 성장, 이후 기술과 창조, 세계화를 지향하는 혼다이즘(Hondaism)을 주창하며 성장 지속

■ **기업은 히트 브랜드 소유로 자만하기보다는 지속적인 브랜드 관리가 '단명' 브랜드가 아닌 장수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임**

---

* "그들은 왜 불황에도 사랑을 받을까"(동아비즈니스리뷰, 2009.6.15) 참조

□ 애플 세대*

■ **같은 실버 세대라 하더라도 보다 멋지고 진화된 노년의 삶을 영위하는 이른바 '애플(APPLE) 세대'가 많아짐**

- '70대 장수 축구단', '실버 자원봉사', '실버 악단', '실버 마술단' 등 정신과 신체가 건강한 노년층을 중심으로 이전 세대와는 확실히 다른 뉴 실버 문화가 창출

■ **애플 세대란 '활동적으로(Active) 자부심을 갖고(Pride) 안정적인(Peace) 고급문화(Luxury)를 즐기는 경제력(Economy)이 있는 노년층'을 말함**

- 영국 트리니티大의 피터 라슬렛 교수가 노년기를 '제3의 인생(The Third Age)'이라고 명명하고, 하버드大 성인발달연구소의 윌리엄 새들러 박사가 은퇴 이후 30년의 삶을 '핫 에이지(Hot Age)'라고 표현한 것도 비슷한 맥락
- 이들은 "나는 더 이상 그렇고 그런 노인네가 아니다(노노, No老)"를 외치고 있음
- 사실 노년은 일과 젊음 등 여러 측면에서 보면 '상실의 시대'일 수 있지만 오히려 여가 활동 측면에서는 이제껏 하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의 시기'이기도 함

■ **고령화 사회에는 실버 파워를 국가경쟁력으로 만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함**

-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연구원은 '건강하고 능력있는 노인들'이 경제, 문화 등 각종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의 의식을 전환시켜 고령화 사회라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

---

* "애플세대의 No老 선언"(서울경제신문, 2009.6.18) 참조

□ 세계은행 중국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 **6월 18일, 세계은행이 2009년과 2010년의 중국경제 성장률을 각각 7.2%와 7.7%로 상향 조정함**

- 연초 세계은행은 2009년 중국경제 성장률을 6.5%로 하향 조정한 바 있음

- 세계은행은 정부의 강력한 확장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점을 근거로 제시
  - 도시지역 고정자산투자와 소비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

■ **세계은행은 향후 중국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세를 전망하면서도 몇 가지 우려사항을 제기**

- 정부 투자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투자는 여전히 부진
  - 상반기 정부 부문의 투자 증가율은 50%를 상회하나 민간 투자는 20% 대의 증가율에 그침
  - 주요 대도시의 부동산 거래가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신규 건설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

- 주민 소득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소비 증가세 지속 여부가 의문시
  - 2009년 1/4분기 농촌지역 주민의 실질 소득 증가율은 한 자리 대로 추락
  - 소비자 심리도 작년 8월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 대외 부문이 지속적으로 악화
  - 중국의 대외수출은 작년 11월 이후 6개 월 연속 감소, 상반기 수출 증가율은 -20%를 하회할 것이 확실시 됨

■ **중국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이나 세계경기가 회복되기 전에는 10%의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

□ 금융위기 이후 '新경제'를 대비하라*

■ **미국의 경제전문지인 '머니'는 금융위기 이후 다가올 '新경제' 예상도를 제시하였음**

- '新경제'란 향후 미국이 겪게 될 새로운 경제풍속도를 지칭하는 용어로, 소비축소, 무소유, 비정규직, 규제강화, 심화된 변동성 등 5가지 특징으로 이루어짐

< '新경제'의 다섯 가지 특징 >

구 분	내 용
1. 소비규모의 축소	· 주택경기의 침체 및 높은 실업률로 인해 개인들이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대비한 저축을 늘이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 경기 침체 이후 적극적인 소비에 나섰던 소비자들이 금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씀씀이 자체를 줄이게 될 것임
2. '소유시대'의 종언	· 주택담보를 받은 미국 가계의 상당수가 차압을 당하거나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있어 '소유시대의 종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3. 본격적인 비정규직 시대의 도래	· 기업의 유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비정규직의 확대가 불가피함 · 향후 10년 안에 미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비중은 현 30%에서 4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4. 규제강화	·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들이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 및 금융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강도 높은 규제안 마련에 집중하고 있음 ·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신용카드사 수수료율 인상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하였음 · 유럽은 대륙전체의 금융산업을 관장할 새로운 금융규제 기구 창설을 논의 중에 있음
5. 변동성 심화	·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야기된 사회의 복잡성 증대로 인해 금리, 주가, 인플레이션 등의 시장지표들의 변동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자료: 머니.

■ **위기극복 후 재편될 세계 경제 및 금융질서와 사회적 변화에 사전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 "금융위기 이후 '新경제'어떤 모습 띨까"(문화일보, 2009.6.16) 참조

□ 기부자본주의, 새로운 노블레스 오블리주

현재 가장 유명한 부자이자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nc.)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Bill Gates)는 2009년 6월 3일 노르웨이 오슬로의 오페라하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부의 사회 환원을 통한 미래 비전을 얘기한다. "모든 부자는 자신이 축적한 부의 상당 부분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를 나누면 자녀들도 더 좋아지고 세상 역시 좋아질 것이다."

사실 그의 이런 의사표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또 수사(修辭)에만 머문 것도 아니다. 그는 2008년 6월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직을 물러나면서 당시 400억 달러에 달하는 재산을 '빌앤멀린다 게이츠 재단(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에 기부함으로써 세상을 깜작 놀라게 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액수에서 차이가 날지 모르지만 빌 게이츠처럼 전 재산을 자선을 목적으로 설립한 재단에 기부하는 행위와 이를 칭하는 '기부자본주의(philnathro-capitalism)'라는 말이 사용되기 시작한지가 생각보다 오래되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단순한 '기부자(donor)'로부터 '기부자본가(philanthro-capitalist)'가 구별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한 사람으로 보통 강철왕이라 불리던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를 들고 있다. 그는 자수성가한 대표적인 기업가로 그의 한창때 재산이 2008년 달러 가치로 환산하여 3,029억 달러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GDP를 기준으로 했을 때 스위스 바로 밑에 해당하는 세계 38번째 국가와 맞먹는 것이었다고 하니 그가 이룬 부의 제국의 크기가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가볍게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인생 후반기인 1900년대에 들어와 더 이상 부를 쌓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정한 '인생의 처음 3분의 1은 공부하는 데, 다음 3분의 1은 돈을 버는 데 그리고 마지막 3분의 1은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이를 사용하는 데 보내야 한다.'는 신조를 지키기 위해 자선사업으로 눈을 돌렸다. 그는 살아생전에 모은 재산을 현명하게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더해 단순히 교회나 공공기관에 기부하는 것보다 갖고 있는 재산을 이를 모으기 위해 애썼던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사회

에 적극적으로 돌려주기 위해 노력한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를 죽을 때까지 실천함으로써 '기부자본가'라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가상을 창조하였다. 그는 특히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어권 국가들의 2,509곳에 '카네기 도서관(Carnegie Library)'이라고 불리는 공공도서관을 지어준 것으로 유명한데 기업가 정신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도서관이 필요한 지역에 1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하면서 해당 지역사회가 이에 맞추어 100만 달러를 조달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함으로써 미래를 내다본 최고의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하였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카네기는 스스로를 단순한 자본가로부터 '기부자본가'로 진화시키면서 자본주의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세운 새로운 전통이 오늘날의 빌 게이츠와 그의 최근의 실천적 행위들로 계승되고 있음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197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미국의 사이몬(Herbert Simon, 1916~2001)은 미국에서 부자들의 재산 중 적어도 90%는 그들이 물려받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덕분이라는 주장을 남겼다. 그의 말을 100%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사회의 도움 없이 재산을 모을 수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알지 못하고 만난 적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쌓을 수 있었던 재산의 일부를 사회로 환원시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며 카네기와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도 자본가의 뛰어난 능력이 발휘될 여지가 많이 있고 그 경우 어떤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 ❝ 계획은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계획수립과정이다. ❞
>
> - 아이젠하워(1990~1969) : 미국의 제34대 대통령 -